

## 반긴축그린뉴딜이란 무엇인가

박승준(朴勝俊)<sup>(1)</sup>, 하세가와 우이코(長谷川羽衣子)<sup>(2)</sup>, 마즈오 타다스(松尾匡)<sup>(3)</sup>

번역: 박승준, 번역 협력: 김근삼

(1)칸세이가쿠인대학(關西學院大學) 종합정책학부

(2)녹색당 그린즈 재팬

(3)리즈메이칸 대학 경제학부

### 요약

2018 년 이후, 구미에서는 격차나 빈곤의 확대와, 기후 위기를 배경으로 한 반긴축 그린·뉴딜(GND)이 잇따라 제안되고 있다. GND 는, 환경정책과 경제 정책을 통합시킨 급진적인 정책안이다. 여기에서는 기후변동방지를 위한 탄소배출 제로 사회에의 이행에 관련된 기존의 제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 거액의 투자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고용에 있어서 ‘공정한 이행’을 실현할 것과, 부나 인종, 젠더, 세대 등에 존재하는 불의를 해소할 것을 주창하고 있다. 또한 반긴축적인 경제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금 조달은 주로 증세에 의존하지 않고, 연금기금 등을 통한 거액의 민간 자금의 유도야, (통화발행권을 소유하는 각국의 경우는) 적자 지출에서 조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 1. 서론

지금의 우리들은 기후 변동과 더불어, 긴축정책(austerity)에 의한 격차·빈곤의 심각화라고 하는, 역사적인 2 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기후변동은 태풍, 한발, 산불, 호우 등 재해의 대규모화, 군사적 분쟁이나 난민발생의 큰 요인이 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이하 IPCC)는 기후변동을 1.5 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이산화탄소배출량(CO<sub>2</sub>)을 2030 년까지 2010 년 대비 45% 삭감하고, 2050 년까지는 인위적인 배출치를 순 제로(Net Zero)까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추계를 공표했다 (IPCC, 2018).

그러한 가운데,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라고 하는 스웨덴에 16 세의 소녀가, 기후 위기의 회피와 기후 정의(Climate Justice)<sup>1</sup> 실현을 요구하며 금요일의 학교 스트라이크를 시작했다. 이것은 많은 젊은이들의 공감을 불렀고, 미래를 위한 금요일 (Friday for the Futur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세계에 널리 퍼졌다. 2019 년 9 월에 행하여진

<sup>1</sup> 화석 연료를 대량소비하는 선진국이 일으킨 기후변동에 의해 개발도상국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불공평을 시정하는 것.

FoE Japan HP <http://www.foejapan.org/climate/about/climatejustice.html>

글로벌 기후 행진에는, 760 만명이 모여 기후 위기를 호소했다고 전해지고 있다<sup>2</sup>. 그녀가 2019 년 9 월 23 일에,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한 스피치는, 온세계의 미디어에 다루어지며 큰 주목을 모았다<sup>3</sup>. 여기서 그녀는 “대규모 멸종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역설했다<sup>4</sup>. 그녀의 언동과 글로벌 기후 행진은, 기후변동에의 위기감과, 대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기후변동의 심각함을 강조하고, 경제문제를 경시하는 듯 보이는 주장으로 인해, 사회를 분단시킨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Wohlfarth, 2019).

우리는 기후 변동과 동시에, 긴축정책에 의한 격차·빈곤의 심각화라고 하는 위기에도 직면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긴축정책을, ‘인플레이션 재정과탄을 염려하고, 완화적 금융정책이나 확장적 재정 정책의 이용을 기피하고, 사회 보장 지출을 비롯한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중과세의 강화를 하는 것 같은 정책 스탠스’로 정의한다. 신자유주의적인 긴축정책·구조개혁은, 일부의 부유층에 보다 많은 부를 독점시킬 뿐, 중간층을 몰락시켜, 격차와 빈곤을 확대했다. 그 결과, 경기는 정체하고, 실업이나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하고, 육아나 노후 등 장래에의 불안이 높아졌다. 사람들의 불안은 배외적인 극우세력의 대두를 초래하여, 세계적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직면하는 2 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2018 년이후 차례로 내세워진, 긴축정책에 대항하는 반긴축 그린 뉴딜(이하, 반긴축 GND)이다. 반긴축 GND 는, 경제의 구조전환뿐만 아니라, 대담한 발상의 전환을 추구하는 정책 패키지다. 이는, 야심적인 탄소삭감목표를 세우고,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의 도입 목표를 내세울 뿐만 아니라, 반긴축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세입이나 재정규율에 구속될 일이 없이 대규모 재정투자를 행하는 것으로, 저탄소경제에의 공정한 이행(Just Transition)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 더 나아가 소득이나 부의 격차, 인종이나 젠더 등을 둘러싼 모든 불공정의 시정을 목표로 하는, 지극히 혁신적이며 동시에 포괄적인 전략이다. 본고에서는, 반긴축 GND 에 대해서, 그것이 탄생한 역사적·정치적 배경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반긴축 경제 정책 및 아카데미한 연구에 대해서, 기존 문헌의 정리와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 2. GND 의 2 개의 물결과 초록의 당, 탄소배당에 관한 미국 경제 학자들의 성명

### 2.1. GND 는 무엇인가

GND 라고 하는 명칭은, 1929 년의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한 New Deal 에서 유래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는

<sup>2</sup> 글로벌 기후 행진 HP, 2019.9.20 <https://ja.globalclimatestrike.net/1001-2/>

<sup>3</sup> NHK 클로уз 업 현대, 2019.9.26 <https://www.nhk.or.jp/gendai/articles/4333/>

<sup>4</sup> TV 아사히 HP, 「그레타 씨 유엔 연설 전문」, 2019.9.25 [https://news.tv-asahi.co.jp/news\\_international/articles/000165216.html](https://news.tv-asahi.co.jp/news_international/articles/000165216.html)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주체가 각각의 내용이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환경이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의 투자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고용 창출이나 경기자극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에의 부담을 삭감하기 위한 산업 구조·사회 구조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정책” (모로하시 諸橋 2009, p.2)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GND 는, 발표의 시기나, 사회적 배경, 발표 주체, 그리고 기반으로 하는 경제이론으로부터, 크게 2 개의 물결들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2008 년에서 2009 년로 걸쳐서 발표된 GND 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다 (모로하시 諸橋, 2009). 또 하나가 2018 년부터 차례로 발표되고 있는 GND 로, 미국 민주당의 연방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이하 AOC) 등이 발표한 것이 그 대표 예다 <sup>5</sup>. 그리고 이 2 개의 물결 이외에도, 환경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녹색당이, 자신들의 환경·경제 정책을 통합 발전시키는 형태로 발표한 GND 가 존재한다 <sup>6</sup>.

## 2.2. GND 제 1 의 물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단이 된 세계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 년 7 월에, 영국의 정치가·저널리스트·연구자·환경보호단체로 구성된 The Green New Deal Group 이 “경제와 환경의 벨트다운으로부터 세계를 되돌리기 위한” 정책집으로서, *A Green New Deal* 을 발표했다 (The Green New Deal Group, 2008). 이것이 GND 를 표방한 최초의 정책집이다. 이 정책집은 기후변동, 세계금융위기, 석유 자원 고갈을 ‘3 대위기’로 칭하고, 금융과 조세의 재구축 및 재생가능에너지자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출동을 기동으로 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A Green New Deal* 은, 세계금융위기가 초래한 불황기의 실업 증가, 국제적인 기후변동대책의 기운 고조, 그리고 원유가격의 앙등과 분쟁 등 리스크의 확대에 의해 재생가능에너지에 주목이 모인 것 등을 배경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정책집을 계승하듯이, 다음 해까지 차례차례로 ‘그린’을 표방한 경제·고용·성장 전략이 발표되었다 (모로하시 諸橋, 2009). 유엔에서는, 반기문 사무 총장이 2008 년 12 월에 유엔 기후변동틀조약 제 14 회 체약국 모임(COP14)에 있어서, 각국에 GND 의 실시를 제창했다 (UN News Center, 2008). 또 같은 해 3 월에는 유엔 환경계획(UNEP)이 정책요지 *Global Green New Deal* 을 발표하고, 세계 GDP 의 1%에 해당하는 7500 억달러 (약 81.8 조엔<sup>7</sup>)을, ①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②재생가능에너지, ③지속가능한 교통, ④물·삼림 등의 생태계 인프라스트럭처, ⑤유기 농업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의 5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UNEP 2009).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공약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서 GND 에

<sup>5</sup> H.Res.109, 2019.2.7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resolution/109>

<sup>6</sup> Butikofer et al. (2009); European Greens (2012); Green Party US (2012)

<sup>7</sup> 환율은 2019 년 11 월 26 일의 레이트에 근거하고, 1 달러=109 엔, 1 유로=120 엔, 1 파운드=140 엔, 1 원=0.093 엔으로 했다.

해당하는 정책을 공표하고, 또 취임 직후 2009년 1월에 실시할 의사를 뚜렷하게 밝혔다. 오바마 본인이 GND 라고 하는 명칭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로부터 ‘오바마의 GND’로서 큰 주목을 모았다 (테라시마 외 寺嶋, 2011, p.86).

오바마는 선거 공약에, 재생가능에너지에 1500 억달러 (약 16.3 조엔)의 전략적 투자를 통하여 500 만명의 새로운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100 만대의 미국 국내 생산,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2025 년까지 25%로 올리고, 캡 앤 트레이드를 도입해 2050 년까지 온실 가스 80% 삭감 등을 내걸었다 (모로하시 諸橋, 2009). 그러나, 대통령취임후에 실시된 오바마의 경기자극책은, 재정 적자의 확대를 비판하는 의회공화당의 저항에 의해 축소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노구치 野口, 2015, p.11), 그 후는 GND 붐도 일단 수그러들었다.

### 2.3. GND 제 2 의 물결

2018 년 11 월의 중간 선거로 역사상 최연소의 여성 연방 하원의원이 된 AOC 는, 당선 직후에 Sunrise Movement (기후 변동을 멈추고, 그 과정에서 몇백만이나 되는 좋은 고용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젊은이들이 조직한 운동) 등의 활동의 영향을 받고, 연방하원의회에 GND 검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야마기시 山岸, 2019), 이를 계기로 다시 GND 가 주목받게 되었다. AOC 가 당초 공표한 GND 는, 2030 년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100%과 온실 가스 배출 제로를 내걸어 (DiChristopher, 2019), 격차·빈곤을 시정하기 위한 경제 및 사회 보장 정책으로서, ‘전국민보험제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보장프로그램(JGP)’, 기본소득(BI)등을 담은, 지극히 야심적인 내용이었다 (Friedman, T., 2019). 더욱더 획기적인 점은, 고탄소 산업 노동자를 저탄소 및 양질의 고용으로 공정하게 전환 이행하게 하며, 성차별이나 이민 차별 등이 사회적인 불평등한 시정·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다 (야마기시 山岸, 2019). AOC 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의 에드 마키와 함께 GND 결의안을 기초하고, 차세대 대선 유력후보로도 꼽히는 엘리자베스 워렌 등을 포함한 민주당 연방의원 94 명의 지지를 달았다 (Rizzo, 2019). 그러나, 상원에서는 공화당원의원의 반대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측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 혹은 판단 보류를 했기 때문에 결국 부결되었다 (로이터, 2019). 한편, BI 와 같은 급진적인 정책은 당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던 것부터, 결의안의 최종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Coelho, 2019).

또, 이전의 대통령 선거로 많은 젊은이의 지지를 모으고, ‘샌더스 선풍’을 일으킨 ‘민주사회주의자’의 버니 샌더스도, 2019 년 8 월, GND 를 발표했다 (Friedman, L., 2019). 샌더스는 GND 를 ‘기후변동대책을 거의 모든 정책분야에 반영한, 정의와 공평을 중심으로 한 10 년간의 국가적인 규모의 동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Sanders, 2019). 여기에서는 기후 위기의 해결에 필요한 2000 만명 상당의 고용을 창출해서 실업을 끝내고, 2030 년까지 전력과 수송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제공하고, 2030 년까지

국내배출량을 적어도 71% 삭감하고, 늦어도 2050 년까지 경제가 완전한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중요한 것은, 1930 년대의 New Deal 정책이, 흑인이나 선주민을 제외한 채 추진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기후 정의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주민이나 유색인종, 노동자 등 역사적으로 소외된 그룹과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까지 확대하고, 양질의 고용과 지원을 포함한 공정한 이행 과정의 실현을 언급한 점이다.

2019 년 11 월 14 일, 샌더스는 AOC 와 함께, 미국의 공영주택 120 만호를,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산업이 높고 탄소배출이 적은 건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1720 억달러 (약 18.7 조엔)을 투자하는 Dubbed the Green New Deal for Public Housing Act 를 발표했다 (Nilsen et al., 2019). 그들은, 이 법안에 의해 연간 약 24 만명의 고용창출, 자동차 120 만대의분의 온실 가스 삭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에서는, 영국 노동당이 2019 년 9 월의 당대회에서, ‘2030 년에 온난화 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기후 정의’와 ‘사회적 및 경제적 정의(social and economic justice)을 높이기 위한 급진적인 정책 패키지’인 GND 의 도입 동의를,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서 가결했다 (O’Hagan, 2019). 이 GND 는, 2019 년 3 월에 발족한 젊은 노동당원 수 천명에 의한 풀뿌리운동인 Labour For A Green New Deal 과, 노동당의 젊은 의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초하고, 도입 캠페인 펼쳐 온 결과물이다. 획기적인 사실은, 산업 구조의 전환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것이 자명한 노동당의 지지 기반인 주요 다수의 노동조합들도, 이 GND 를 지지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11 월 21 일, 노동당은, 매니페스토 중 GND 에 상당하는 Green Industrial Revolution(이하 GIR)에, 이 동의를 어느정도 반영하였고, 제안자들도 이를 환영했다<sup>8</sup>. 이 매니페스토에서는, 2030 년까지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의 대부분을 달성하고, 전기의 약 90%과 열의 50%을 재생가능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로 꾸려 갈 것, 석유 및 가스 회사에 대하여 ‘윈드 폴세’를 부과할 것, 6대 전력 회사의 공급 부문의 국유화, 100 만명의 그린 고용 창출, 2030 년까지 GDP 의 3%을 GND 등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 개발(R&D)에 투자할 것 등을 내걸고 있다 (The Labour Party, 2019). 또, 탈탄소화 경제로 전환함에 의해 영향을 받는 노동자에게, 그린 고용이나 직업훈련을 보장하는 공정한 이행과, 보텀 업과 동시에 노동자주도에 의한 경제 민주화를 정책의 중요한 기둥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전 그리스의 재무각료이었던 반긴축파의 경제 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가 이끄는 Democracy in Europe Movement 2025(DiEM25)도, Green New Deal for

<sup>8</sup> “Labour For A Green New Deal hails manifesto's "groundbreaking" climate programme”, Labour For A Green New Deal HP, 2019.11.21

<https://www.labourgnd.uk/news/2019/11/8/labour-for-a-green-new-deal-hails-manifestos-groundbreaking-climate-programme->

<sup>9</sup> 천연 자원 (주로 원유)가격의 앙등에 의해, 그 생산을 하는 기업이 영업 노력에 따르지 않고, 형제적으로 얻는 이익에의 과세. 미국에서는 제 1 차, 제 2 차석유위기를 경과해서 석유국제원유가격이 앙등하고, 석유회사의 이익도 급격하게 증대했다. 이 이익이 문제가 되고, 1980 년에 윈드 폴·프로핏세 (초과 이윤세)가 신설되었다.

Europe 의 이름 아래 GND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sup>10</sup>. 그들은 이하와 같은 GND 의 ‘10 개의 기둥’ 을 내세워, 여기에 미달하는 경우는 GND 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다<sup>11</sup>.

①과제의 크기에 합치하는 규모일 것

과학은 명확한 사실을 보여준다. 지구의 기온상승을 1.5 도로 억제하고, 생태계의 붕괴를 막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위험에 빠지게 된다.

②유휴 자원을 공공 서비스에 돌리는 것

GND 는 공적인 각 기관에 경제적·환경적 변혁의 추진을 요구한다. 변혁의 부담을 일하는 사람들의 등에 짊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③시민과 커뮤니티를 엔파워(enpower)한다

유럽의 그린 변혁은, 톱다운(top down)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시민과 커뮤니티가 자기의 미래를 만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엔파워'하게 해야 한다.

④ 적절한 일자리를 보증한다

유럽을 위한 GND 는, 적절한 일자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공한다.

⑤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유럽을 위한 GND 는, 모든 커뮤니티의 수준을 끌어 올리고, 번영·안전·자유의 정도를 높여 간다.

⑥평등을 확립한다

GND 는 유럽 중심에서 금융화와 싸우고, 평등을 확립한다.

⑦미래에 투자한다

GND 는 단순한 환경 대응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사회에 있어서의, 미래에 투자이며, 재고의 기회이기도 한다.

⑧끝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도그마를 끝낸다

GDP 의 성장을 진보의 제 1 척도로 삼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들은, 건강·행복·환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더 중시해야 한다.

⑨전세계에서 기후 정의를 지원한다

환경 위기는 지구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GND 도 지구규모의 대책이 아니면 안된다. 유럽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와의 싸움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유럽의 그린 이행을 구동하는 공급망은,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⑩지금 바로 최대한의 행동을 시작한다

GND 는 틀이 아니며, 조약도 협정도 아니다. GND 는 기후 위기방지 목표를 향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집합체다.

<sup>10</sup> Our Coalition, Green New Deal for Europe HP <https://www.gndforeurope.com/our-coalition>

<sup>11</sup> 10 Pillars of the Green New Deal for Europe HP <https://www.gndforeurope.com/10-pillars-of-the-green-new-deal-for-europe>

이러한 생각의 상당한 부분은, AOC 나 영국 노동당의 GND 와도 공유되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다. 특히 ②는, 세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지 않고, 민간의 금융 자산으로부터 투자를 동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반긴축 GND 의 중요한 한 요소다. 재원에 대해서는 뒤에 3.4 절에서 논한다.

더욱 2019 년 9 월이후, GND 에 관련되는 단행본이 일제히 간행되었다.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의 *The (Burning) Case for a Green New Deal* (Klein 2019), 경제평론가 제레미 리프킨의 *The Green New Deal* (Rifkin, 2019), 좌파 케인스 학파이자 영국 노동당의 브레인 역인 앤 페티퍼의 *The Case for Green New Deal* (Pettifor, 2019)이 그것이다. 게다가, 최초의 GND 정책집을 출판한 영국의 싱크 탱크, New Economics Foundation(NEF)도 2019 년 11 월 28 일에, “Five ways to fund a Green New Deal”이라고 하는 리포트 및 동영상을 발표했다 (Powell et al. , 2019). 여기에는 GND 의 재원으로서, ①정부의 차입, ②승수 효과(장래 편익도 평가), ③최대의 책임자에게 과세, ④ 더러운 보조금의 재검토, ⑤중앙은행의 변혁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2018 년 이후에 차례로 GND 가 내세워지고 있는 배경으로는, 기후변동 피해의 심각화에 더해서, 2008 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에 근거하는 긴축정책에 의한 격차·빈곤의 확대와, 그것에 의한 기존 정치에의 불신의 고조,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의 기대가 있었다. 신자유주의적인 긴축정책에서 탈각하고, 발본적인 기후변동대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정치세력이, 상술한 2 개의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반긴축 그린뉴딜 정책을 내걸었다고 볼 수 있다.

#### 2.4. 녹색당과 GND

1980 년대에 유럽 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서 결성된 녹색당은, 당초부터 환경보호를 중심과제로 하고, GND 이전부터 환경 경제 정책을 리드해 왔다. 독일에서는 1998 년에 녹색당이 사회민주당과의 연립 정권에 참가하고, 환경 세제 개혁이나 재생가능에너지 촉진법 (박 차 2009, 제 11 장), 단계적인 원전의 폐지 등을 실현했다 (구마가이 熊谷, 2012, 57-58 페이지). 영국의 *A Green New Deal* 의 집필자 중 한명이, 영국 녹색당 공동 대표로 유럽의회의원(당시)이었던 캐롤라인 루카스다. 2009 년에는 독일 녹색당이 중심이 되어서 *The Green New Deal* 을 발표했다(Butikofer et al., 2009), 2012 년에는 유럽녹색당도 *The Social dimension of the Green New Deal* 을 발표하고 있다 (European Greens, 2012). 바루파키스의 GND 는, 이러한 유럽의 녹색당들의 GND 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다나카田中, 2019). 또, 미국 녹색당도 2012 년에 GND 를 발표하고 있어 (Green Party US, 2012), AOC 의 GND 는, 그 환경·에너지 정책의 상당부분을 미국 녹색당 GND 에 의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Atkin, 2019). GND 의 기초가 되는, ‘환경과 경제를 양립함으로써 보다 좋은 사회에의 이행을 목표로 한다’는 사고방식은, 녹색당이 선진적으로 내세우며 대응해 온 것이며, GND 의

탄생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 2.5. 탄소배당에 관한 미국 경제 학자들의 성명

GND 와는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2019 년 1 월, 「탄소배당에 관한 미국 경제 학자들의 성명-미국 경제 학자들에 의한 역사상 최대의 공식성명-」 이, 27 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전 의장 4 명을 포함하는, 3000 명이상의 경제 학자의 찬동을 얻어서 공표되었다 (The Wall Street Journal, 2019). 기후변동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탄소세의 도입과, 그 세입을 탄소배당(일종의 기본소득)으로써 미국 시민 전원에 환부하는 것을 호소한, 대단히 획기적인 내용이다.

대개 GND 는 과세를 주요 재원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아서, GND 논자의 대부분은 탄소세에 중점을 두지 않거나, 혹은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역진성이 있다고 해서 이 탄소세에 부정적이다 (예를 들면 Pettifor 2019, p. 105). 그 때문에, GND 와 같은 시기에, 입장이나 견해의 다른 미국의 다수의 경제 학자들의 합의로서 제안된 ‘탄소배당’의 제안은, 재원조달 목적을 띄지 않으며 역진성도 해소한 탄소세의 도입안으로써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GND 의 내용과 의의를 검토하는 내용으로도 유익하다 (3.4 절 미쳐 5 절 참조).

## 3. 반긴축 매크로 경제 정책 이론의 개요

### 3.1. 유럽 좌파가 새로운 흐름을 유지하는 반긴축 경제이론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는 이민 배척·EU 이탈을 내거는 정치세력이 대두하는 한편,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장 뤽 멜랑송이 거느리는 ‘불복하는 프랑스’, 그리고 그리스의 바루파키스가 대표를 맡는 DiEM25 등의 좌파신당이 약진하는 등, 큰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다. 또, 영국 노동당내에서는 극좌파인 제레미 코빈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어서 당수가 되고, 미국 민주당에서는 샌더스나 AOC 들이 큰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 좌파신당 및, 기존의 좌파·리버럴 정당이 새로운 흐름의 콘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반긴축 경제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재정위기론’은 프로파간다이며,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핑계로 재정긴축을 강요하여, 공적사회 서비스를 삭감하여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동시에, 민간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고, 공유 재산을 매각하여 대자본을 형성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긴축 재정에 반대하고, 재정위기론에 잡히지 않고 재정을 확대하는 ‘반긴축’이야말로, 경제 정책의 기둥이 된다.”(마츠오 松尾, 2019).

‘반긴축’정책은, 의료 보장, 교육의 무상화, 사회 보장 충실 등의 사회 서비스의 확충은 물론, 재정책대로 경기를 자극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경기침체를 개선하는 내용을 내 걸고 있다. 또, 격차해소를 위해서 한결같이 대기업이나 부유층에의 증세를 제기하고 있다. 공적채무의 상환이나 균형 재정을 절대시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잘못된 신조라고 간주하고, 중앙은행에 의한 화폐창출을 재정지출에 이용하는 ‘재정

파이낸스'나,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양적 완화'정책 등도, 터부시 하지 않고 활용할 것을 지향한다.

### 3.2. 반긴축 경제이론의 주요 3 조류와, 그것들에 공통인 견해

이 정책 주장의 배경으로는, 재정 적자를 최악시 하지 않고, 화폐를 창출함으로써 정부 지출이 행하여지는 것을 긍정하는 최근의 유럽 경제학 내의 여러 조류가 존재한다. 그 어떤 것도 지금까지의 긴축·재정재건론을 떠받쳐 온 신고전파 거시경제학과 대항하며, 그 대부분은 케인즈 경제학의 현대적 조류이며, 오랜 불황을 배경으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하, 마즈오 (松尾, 2019)에 근거해서 설명한다.

첫번째로는, 주류파 케인스학파의 조류로, 영국의 신 케인스학파좌파의 사이먼 렌-루이스, 미국의 좌파 케인스학파 노벨상수상자 폴 크루그먼, 같이 미국의 좌파 케인스학파로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의 새 케인스학파의 중진 마이클 우드포드, 스페인의 새 케인스학파의 조르디 가리등의 영향력이 크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류파 케인스학파'란, '합리적 기대'나 '미크로적 기초'등, 신고전파 거시경제학과 같은 전제나 수학적 수법을 이용하면서, 재정정책·금융정책에 의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유효성을 주장하는 일파를 가리킨다.

두번째 조류로, 비주류파 중에서, 특히,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하이먼 민스키 등의 계통을 이어받는 MMT(현대화폐이론) 가 있고, 이하의 논자들이 여기에 크게 공헌해 오고 있다. 랜달 레이, 워렌 모슬러, 빌 미첼, 스테파니 켈턴, 제임스 갈브레이스들이 주된 논자들이다. 그들은 새 케인스학파를 포함하는 '주류파'의 사고방식(화폐량의 외생설, 금융정책유효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식의 이용 등)을 부정한다 (레이 2019 참고). MMT 는 2019 년에 들어서면서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 MMT 는 '정책'이 아니고 '이론'이며, '경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한 렌즈'라는 점을 여기서 분명히 해 둔다.

세번째로, 비주류파 내에서도 신용 창조 폐지론 (공공화폐론, 헬리콥터 머니론, 포지티브 머니파 등)의 조류가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화폐의 대부분은 민간 은행에 의한 대부로 창조되며 (=신용 창조), 그것이 경제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견해로, 이러한 신용 창조를 폐지하고, 정부가 민중을 위해서 지출하는 형태로 화폐가 창조되는 구조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논의다. 대표적인 일파인 포지티브·머니파는, 상술한 영국의 싱크 탱크 NEF 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듯하다. 그 밖에,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아나톨 칼레츠키, 리처드·베르너, 헬리콥터 머니론으로 유명한 아데어 터너 등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각파의 사이에는 논쟁이 있어, 어떤 논자가 제안하는 정책을 다른 논자가 비판하고 있거나 하므로, 정책을 검토할 때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디플레이탈각이 실현하고, 적정한 인플레이율에 달할 때까지는, 일본은 부가세증세를 해서는 안된다'는 비판 등에서 보듯, 이들 사이에서도 공통되는 견해도 많이 존재한다. 이하의

내용에서 3 조류에 공통되는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 통화발행권을 가지는 정부(sov<sup>er</sup>ign 정부)가 재정과탄 할 일은 없다.
- 과세는 시중의 구매력을 억제해서 인플레이를 억제하는 수단이며,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한 과세는 의미가 없다.
- 불완전 고용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통화발행으로 정부 지출을 꾸려 가도 인플레이가 악화되지 않는다.
- 민간이 저축 초과 상황이라면 재정 적자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 중앙은행은 정부의 자회사와 같은 존재이기에, 정부와 중앙은행을 ‘통합 정부’로 취급한다.

### 3.3. 유럽 좌파의 반긴축정책

이러한 반긴축 경제학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유럽의 좌파신당 및 기존의 좌파·리버럴(liberal) 정당이 새로운 흐름은, 이하와 같은 반긴축 경제 정책을 내걸고 있다.

영국 노동당의 코빈은 예전에 MMT 의 재정학자이자 노동조합회의(TUC) 멤버이기도 한 리처드 머피를 경제 정책 브레인으로 하고, 당수선거에서는 ‘인민의 양적 완화’를 주요정책으로서 내걸었다. 이것은 잉글랜드 은행의 양적 완화 머니를, 국립 투자 은행을 통해서, 주택 건설 등의 공공적 목적을 위하여에 투자한다고 하는 내용이다. 당수 취임 후에는, 중앙은행이 만든 머니를 일률급부하는 협의의 헬리콥터 머니를 제창하고 있었던 신 케인스학파의 렌 루이스나, 앞에서 언급한 페티퍼를 브레인으로 영입했다. 그리고 2017 년 총선거에서는, 대기업이나 부유층에의 486억파운드 (6조 8040억엔)의 증세를 재원으로 하여, 대학교육 무상화 등의 정상적인 사회 서비스에의 지출을 동액 늘릴 것, 그리고 고속열차나 주택 건설 등, 국가변혁 기금을 통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는 10 년간에 2500 억파운드 (35 조엔)을, 잉글랜드 은행이 양적 완화 하고 있는 환경아래에서, 저금리의 차입으로 꾸려 가는 것을 내걸었다.

이 매니페스토는 유권자, 특히 젊은 세대의 지지를 모았다. 그리고, 총선거에서는 노동당이 대약진해 여당인 보수당의 과반이 무너지게 하였다. 덧붙이자면, 페티퍼는 최초의 GND 정책집, *A Green New Deal* 의 집필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한다. 그녀는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 전 수상이나 데이빗 캐머런 전 수상 등의, ‘모든 지출은 과세로부터 제공되고 있어 정부에는 다른 자금원이 없다’는 생각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세대와는 달라 지출과 세입의 밸런스를 잡을 필요는 없고, 재정 당국이 금융당국과 긴밀히 제휴하면, 세수에 의지할 일 없이 GND 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Pettifor, 2018).

미국 민주당의 샌더스는, 2016 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으로, 5 년간에 걸치는 1 조달러 (약 109 조엔)의 공공투자에 의해, 노후화한 도로, 다리, 철도, 공항, 대중교통 시스템,

항만, 댐, 하수도 등의 인프라스트럭처 정비를 하고, 1300 만명의 고용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었다. 또한, 젊은이에게 직장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55억달러 (5995 억엔)을 투자하고, 100만명의 젊은이에게 고용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샌더스는, 2015 년 12 월 23 일의 *New York Times* 에의 기고 안에서, 금융완화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제창하고 있다. 그리고, 2018 년의 미국 중간 선거에서는, 샌더스 자신이 상원 의원 선거로 압승한 것 이외에, 샌더스파가 하원에서 10 의석, 주의회에서 36 의석을 획득하며 주요 세력으로 확고하게 입지를 다졌다<sup>12</sup>.

샌더스의 경제 어드바이저(adviser)의 한사람이 MMT 의 켈턴이다. 단, 샌더스 자신이 MMT 를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샌더스 파의 AOC 는, MMT 지지를 명언하고 있다 (Holland, 2019). AOC 는 공약의 주요 정책으로써, 전국민의료보험이나 공립학교·직업전문학교의 무상화에 더해, MMT 의 주요정책인, 근로 의욕이 있는 사람 누구나 국가가 고용을 보증하는 제도인 ‘고용 보증 프로그램(Job Guarantee Program, JGP)’을 내걸었다. 그리고 당선 후에는, ‘정부는 예산의 밸런스를 잡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재정 흑자는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MMT 야말로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회화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해 (Relman, 2019), 찬반양론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여기까지 상술했던 영국이나 미국의 정부는 화폐발행권을 소유하는 소브린(sovireign) 정부이지만, 유로 가맹국은 소브린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중앙은행의 화폐발행권을 이용하는 모양으로 적자 재정 지출(재정 파이낸스)을 할 수 없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재정 파탄한 유로 가맹국인 그리스에서 재무장관을 맡았던 바루파키스가 시작한 정당 DiEM25 은, 그 강령인 ‘유럽 New Deal’ 중에서, ‘대규모 그린 투자’, ‘고용 보장 시스템’, ‘반빈곤기금’, ‘보편적인 기초소득배당(BI)’, ‘퇴거에 대항하는 보호 정책’으로 구성된 5 대정책을 내걸었다. 투자 재원에 대해서는, 유럽 투자 은행이나 독일 부흥 금융 공고(KfW)등이 투자 사업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고, 이것을 유럽중앙은행이 매입하여 지원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그 채권의 가치를 보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Varoufakis, 2017).

그들이 내거는 GND 도, 당연 이 반긴축 경제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3.4. 유럽 좌파의 GND 의 반긴축적 측면

미국의 AOC 의 GND 는,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반긴축 경제이론에 근거하고 있어, 특히 그 재원의 조달방법이 논의의 표적이 되었다. AOC 는 재원에 대해서, 대규모 적자 재정 지출로 조달한다고 명언해 (Aronoff, 2018), 찬반양론을 일으켰다.

<sup>12</sup> “Political Revolution Picks Up Momentum in 2018 Midterm Elections” Our Revolution HP, 2018.11.8  
<https://ourrevolution.com/press/political-revolution-picks-momentum-2018-midterm-elections/>

이것은, 소브린 정부가 재정과탄 할 일은 없다고 하는 인식에 근거한다. 한편으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60Minutes의 인터뷰에서는, GND의 일부는 초부유층에 최고 70%의 과세를 하는 것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시사하여 보수파의 분노를 샀다 (Choi, 2019).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GND에 필요한 액의 불과 0.2%밖에 조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어 (週刊東洋經濟 PLUS, 2019), 역시 세 이외의 재원이 주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샌더스는, GND 목표달성을 위해서 16.3 조달러 (약 1777 조엔)이라는 유래 없는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정부가 직접 수행할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거래 당국을 통한 에너지 판매로부터의 수익, 화석 연료산업에의 보조금의 폐지나 과세, 석유수송의 보호에 관련되는 군사지출의 삭감, 유복한 대기업의 분담금, 새롭게 창출된 2000 만명의 고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세, 그리고 고용 확대에 의해 줄어드는 생활보호비 지출 등에서, 15 년이상에 걸쳐서 조달한다고 하고 있다 (Sanders, 2019). 그러나, 샌더스의 GND는 10 년간으로 많은 목표달성을 목표로 하는 급진적인 것이며, 막대한 공공투자가 선행되기, 역시 세 이외의 재원이 주체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코빈이 당수를 맡는 영국 노동당의 GND (GIR)은, 4000 억파운드 (약 56 조엔)의 국가변혁 기금(National Transformation Fund)을 설립하고, 이 중 2500 억파운드 (약 35 조엔)은 재생가능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와 수송, 생물다양성 및 환경회복에 특화한, 녹색 변혁 기금(Green Transformation Fund)을 통해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내걸고 있다 (The Labour Party, 2019). 또, 지역 개발 은행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국립 투자 은행을 설립하고, 기업, 인프라스트럭처, 이노베이션에 10 년간에 2500 억파운드 (약 35 조엔)의 융자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대규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우체국의 지점을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우편은행을 통해서, 신흥기업, 중소기업, 지역의 협동조합, 커뮤니티의 프로젝트도, 소규모적인 론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적·민간 양쪽의 국가 자원의 총동원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것은 대규모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의 촉진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바루파키스가 거느리는 DiEM25의 경우는, 통화 발행 권한이 없고 적자 재정에 엄격한 제약이 부과되고 있는 유로 가맹국(그리스)의 문맥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적어도 유럽의 GDP의 5%를 GND에 투자하고, 그 재원은, 양적 완화의 결과로서 민간 은행이 자연스럽게 모은 준비 예금이나, 기관 투자가등의 자금을, 유럽 투자 은행(EIB)이 발행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이 매입 선언을 통해 가치를 보증하는 유럽공공은행채(그린채)를 통해서 활용한다고 하고 있다<sup>13</sup>.

이 그린채를 둘러싸고, 독일 녹색당 유럽의회의원(당시는 선거중이었으므로 후보)인 스펀 기골트와 토론이 행해졌다 (Meyer, 2019). 덧붙이자면, 독일 녹색당은 독자적인

<sup>13</sup> Green New Deal for Europe HP <https://www.gndforeurope.com/campaign>

GND 를 걸고 있지만, 반긴축이 아니고, 재원으로서는 과세를 중시하고 있다. 기골트는 토론 안에서, 그린채의 유럽중앙은행(ECB)에 의한 매입은 위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바루파키스는, 그리스의 재무장관으로서 자동적으로 EIB 의 이사가 된 경험으로부터, ECB 에 의한 그린 채권의 매입 같은 것은 실제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합법하다고 반론했다. 또 바루파키스는, 공통의 기업 과세에는 찬성하지만, 과세에서 GND 의 재원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그 이유로 공통의 기업 과세는 실현이 곤란하며, 세입액수도 기껏 3 년에서 5 년에 500 억유로 (약 6 조엔)에 그치지만, 그린채라면, 매년 유로권의 GDP 의 5%에 맞는 5000 억유로 (동 60 조엔)이 조달가능할 수 있기 점을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바루파키스는, ‘21 세기의 자본’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와도, 유럽의 좌파·혁신파의 논객이 투고하는 Social Europe 의 지면상에서도 같은 논쟁을 펼쳤다 (田中 2019). 피케티는, 2018 년 12 월, 120 명의 정치가·학자와 함께 ‘유럽 민주화 매니페스토’ (*Manifesto for democratization of Europe*<sup>14</sup>)를 발표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유럽의 GDP 의 4%에 맞는 예산 제도와, 그 재원이 되는 4 개의 유럽 과세<sup>15</sup>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것에 대하여, 바루파키스 및 그의 맹우인 상술의 갈브레이스나, 영국 노동당 국회 의원으로 경제 학자의 스튜어트 홀랜드로부터, 비판이 차례로 투고·게재되었다. 이는 곧, 2018 년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연료세 인상을 실시하려고 한 마크롱대통령이 ‘노란 조끼’ 운동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세의 도입은 정치적 기반을 허물어뜨리며, 세수입도 확실하지 않다. 게다가, 피케티의 안은 지출이 행하여지기 전에 과세하게 되지만, 반대파에서는 이것은 몽상과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하고 있다(다나카 田中, 2019). 양측 모두, EU 의 그린·에코 논리적인 전환과 실현을 위한 방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재원에 관해서는, 과세인가, 혹은 그린채에 의한 민간투자의 촉진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과세를 전제로 하는 피케티의 정책은 반긴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전에 독일 녹색당이 1998 년의 총선거 때에 자동차 연료과세의 인상을 내걸면서 지지를 잃거나 (박 朴, 2009, pp.173-174). 프랑스에서 2018 년에 연료과세를 계기로 대규모인 ‘노란 조끼’운동이 발발하거나 하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증세를 예정대로 진척시키는 것은 용이한 것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금은 불확실한 재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페티퍼도 OECD 각국 연금기금의 43 조달러 (약 4687 조엔)규모의 자금 이외에도, 세계 도처에 거액의 민간 자금이 존재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Pettifor 2019, p. 148). 리프킨도 역시 2017년 시점에서 세계의 연금기금에는 40 조달러 (약 4360 조엔)을 넘는 자금이, 미국 내에서만 25.4 조달러 (약 2769 조엔)규모의 연금기금이 존재하고,

<sup>14</sup> Manifesto for democratization of Europe <http://tdem.eu/en/manifesto/>

<sup>15</sup> 예산은 4 대 유럽 과세에 의해 조달된다. 그것들은, 대기업 이윤 과세, 고액소득자누진과세(소득이 연간 20 만유로이상), 고액 개인 재산 자산과세(100 만유로이상), 카본 배출량과세(톤당 최저가격 30 유로)이다 (출전은 각주 14 과 같다).

투자대상을 기존의 화석 연료산업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변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Rifkin 2019, p. 9). 이러한 민간 자금 이야말로 중요한 자금원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유럽의 좌파 정당 및 기존의 좌파 리버럴 정당이 중심이 되어 내거는 새로운 흐름인 반긴축 GND 는, 모두 반긴축 경제이론을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이나 대중교통 등의 인프라스트럭처, 경기·고용 대책, 사회 보장 등에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하는 것을 내걸고 있다. 반긴축 GND 에 있어서는, 세금은 주요한 재원이 아니고, 누진 소득세 등의 증세는 주로 재분배의 수단으로서, 또 탄소세나 에너지세 등의 환경세는 온실 가스나 에너지 소비를 삭감하기 위한 배드(Bads)과세로서 위치가 부여된다. 자금 조달에 관해서는, 그린 투자 채권을 통한 민간 자금의 활용이 제안되고 있다. 재정 파이낸스에 기초를 두는 적자 재정 지출은 유로 가맹국들에게는 그 실사가 곤란하고 영미와 같은 소브린 정부만이 가능한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이 방법은 중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재원조달 방법의 중심선상에서 논의되어 온 경위를 생각하면, 앞으로는 여론이나 논의의 동향을 보면서 유연하게 재원조달 방법으로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 4. GND 에 관한 아카데미한 기존 연구에 대해서

##### 4.1. GND 의 기술적 가능성에 관한 기존 문헌

2018 년 가을경부터 등장한 반긴축 GND 에 관해서는, 신문·잡지등의 기사 이외에는, 아카데미한 논문은 필자의 좁은 식견으로 보건대 지극히 적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MMT 의 렌달 레이가 네르시시안과 함께 쓴 “How to Pay for the Green New Deal”은 제목 그대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Nersisian and Wray 2019). 이것은, 케인즈의 *How to Pay for the War* 의 수법에 기초를 두고, 필요한 자금액수뿐만 아니라, 실물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자금조달은 소브린 정부인 미국 정부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문제는 실물자원이 궁핍할 때의 인플레이지만, 그 또한 목적을 명확히 잘 설정한 과세나 임금·가격 규제, 배급제나 자발적인 저축의 장려 등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으로는, 장래의 제로 탄소사회에의 이행에 관한 기술적 가능성과, 그 비용 등에 관한 분석은 여러 개가 존재하며, 그 일부는 일반 대중에게도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레벨로써 Rifkin(2019)에 잘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스탠퍼드 대학의 Jacobson et al. (2017)은, 139 개국에서 2050 년까지 완전전화에 의한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나타냈다. 미국 전 국토에 스마트 그리드와 축전지를 도입하는 비용과 편익에 관해서 EPRI(2011)은, 20 년간으로 약 3380~4760 억달러 (약 36.8~51.9 조엔)의 비용과 1.3조~2조달러 (약 142~218 조엔)의 경제적 편익 및 58%의 배출 삭감을 예상치로 잡았다. 또, Brattle Group 의 Weiss et al. (2019)로 의하면, 송배전망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31 년이후 매년 400 억달러 (약 4.4 조엔)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 다른쪽 (타면), 일본에 있어서의 재생가능에너지 100%에의 로드맵은

아스카(明日香) 등(2019)의 연구가 있고, 재생가능에너지 대량 도입을 위한 전력시스템 개혁에 관해서는 모로토미(諸富) 편저(2019)의 연구가 있다.

2019년 4월에 핀란드의 LUT 대학과 독일의 Energy Watch Group 이 발표한 보고서(Ram et al., 2019)는, 머리말에서 그레타 툰베리들의 Fridays For Future 에 언급한 뒤에서, 원자력이나 CCS 등의 위험한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기온상승을 1.5 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이후 20~30 년으로 재생가능에너지 100% 이행을 실현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 4.2. 오바마 정권 때의 GND 에 관련되는 연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바마 대통령 당시의 GND(미국 회복 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ARRA), 혹은 자극책 Stimulus)를 다루는 정량적 분석이나 실증 연구가 몇 가지 보여진다.

Gimpel et al.(2012)은 정책과학적 관점에서, 2009 년의 ARRA 의 자금배분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여, 자금이 실업률이나 주택압류율이 높은 지역보다도, 오히려 인프라스트럭처나 연구 거점이 있는 지역에 더 분배되고 있었던 것을 밝혔다. 그 이유로서, 정치가의 이익유도의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금융위기에 의해 ‘정책의 창문’이 열렸을 때에 성립한 ARRA 가, 재생가능에너지나 의료 등이 중요한 여러가지 정책안이 던져 넣어진 ‘쓰레기통’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계량 분석을 통해 밝혔다. 또, Hartmann (2009)은, 금융위기와 ‘Stimulus’를, 젠더에 역점을 둔 노동 경제학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분야는 반드시 여성의 고용에 직결하지 않지만, 교육이나 보육, 가정내 폭력 대책 등, 여성의 고용이나 생활에 배려된 지출 항목도 적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었다.

탄광지역의 ‘공정한 이행’에 관해서, Green New Deal for Appalachia 에 관한 정치학적 연구가 있다 (Taylor et al. 2017; Tarus et al. 2017). 이들은, 대자본이 운영하는 석탄산업이 안는 경제적·정치적·문화적곤란을 밝히는 동시에, 탄광이 폐지된 지역의 환경회복과 고용 창출에 관한 보텀 업(bottom up)의 정책형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 4.3. GND 분석을 위한 경제 모델 가능성

기존 문헌에서는, 기온상승 2 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 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대폭삭감(대부분은 8 할 감소), 또는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분석 및 경제적 분석이 보여진다. 기후변동분석으로 이용된, 경제·에너지·기후영향의 모듈을 통합한 모델은, 일반적으로 통합적 평가 모델(Integrated Assessment Model, IAM)이라고 불린다. 가장 단순한 IAM 의 예는, 2018 년의 노벨 경제학상을 획득한 Nordhaus 의 DICE 모델이다 (비교적 새로운 결과는 Nordhaus, 2017; 이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Lee et al. , 2019, p.6 을 참조). IPCC 의 2018 년의 보고서에서는 기후변동완화 정책의 효과와 경제영향의 분석을 위해서, 보다 복잡한 IAM 이 복수 사용되고 있다 (Rogelj et al.

2018; 평가에 이용된 19 건의 IAMs 는 그 부속 문서 2.SM.1.2 로 설명되고 있다).

IAM 안에는 상세한 경제 분석 모델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경제 모델을 내장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최적의 인간행동과 완전한 시장을 전제로 하는 응용 일반균형 모델(CGE)이나 최적 성장 모델이 채용되어 있다 (상기의 19 건 안에는 케인스학과 모델과 같은 불균형 모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 경제 모델은, 항상 완전 고용이 성립해 사회적 순편익이 최대화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예외적인 설정을 이용했을 경우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규제나 탄소세 등의 환경정책적 개입의 분석에 이용하면,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악영향이 생긴다고 하는 결과를 낸다 (Pollitt et al., 2016). 또, 탈탄소화를 위한 투자가, 반드시 다른 기존의 투자를 크라우드아웃 하는 구조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경제 모델은, 투자를 환기하는 정책 어프로치인 GND 의 분석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불균형 경제 모델을 사용하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의 경제에는 유휴 자원이나 노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나 저탄소화를 위한 투자는, 실질 GDP 등의 경제 지표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환경세계개혁(탄소세의 도입과, 다른 세의 감세 등을 조합)의 효과도 CGE 등의 경우와는 달라진 결과를 보여준다.

불균형한 매크로 계량 모델을 채용한 IAM 에는 E3ME-FTT-GENIE 가 있다 (Mercure et al., 2018). 그 중심부를 이루는 Cambridge Econometrics 의 E3ME 모델은 대규모인 다부문·다지역의 매크로 계량 모델이며, 또 경제·에너지·환경오염·물질배출의 분석이 가능한, 소위 E3 모델 (Economy, Energy, Environment)이다. E3ME 은 우체통·케인스학과(Keynesian) 이론에 근거하고 있어, MMT 논자가 중시하는 내생적 화폐의 상정도 채용되고 있다 (Pollitt et al., 2018). 최근에는 전력·교통·철강등의 분야에 관한, 비최적화형의 기술선택 simulation model 인 FTT 모델과 결합되었다. E3ME-FTT 도 E3 모델이지만, 이것이 기후 모듈 GENIE 와 결합되는 것에 의해, IAM 으로서 사용 가능해졌다.

E3ME-FTT 의 응용 예로써 이등(李ほか, 2019)의 연구가 있지만, 이것에 의하면, 탄소세입을 부가세 감세 등에 환원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GDP 에 플러스 효과(이중배당)이 있음을 보여준다.

2030 년까지 주요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순 제로로 한다고 하는, 야심적인 GND 에 관한 시나리오 분석은 아직 행해지고 있지 않은 듯 보이지만, 만약 그것이 행해진다면, E3ME-FTT 는 가장 유용한 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 5. 반긴축 GND 에 관한 고찰

반긴축 GND 는, 반긴축정책과, GND 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는 정책의 ‘공통된 부분’이다. 반긴축정책의 모두가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라도 아니면, 모든 GND 가 반긴축적일 리도 없다 (예를 들면 독일 녹색당 GND 는 반긴축이 아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반긴축 GND 는, 환경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액의

공공투자·민간투자를 실시하는 것이지만, 그 재원을 증세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자금을 동원하거나, 소브린 정부의 경우 화폐발행권의 활용(중앙은행이 후원자가 되는 적자 재정 지출)에 의해 조달한다.

경제의 구조전환과, 대담한 발상의 전환을 추구하는 반긴축 GND 는, 기후변동과 격차·빈곤이라고 하는 쌍둥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효한 정책이다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반긴축 GND 에도 몇 가지의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원자력발전에 대한 자세다. GND 제 1 의 물결도, 반긴축 GND 인 제 2 물결도, 명확히 원전의 폐지의 가치를 올리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원전 추진을 명언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가장 급진적인 온실 가스 삭감 목표를 내세우는 영국 노동당의 GND(GIR)에는, 원자력의 ‘신설’이 명기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하여, 샌더스의 GND 에는, ‘원전 라이선스의 갱신을 모라토리엄 한다’라는 문언에서 보듯, 사실상의 웨이드 아웃(fade out)을 내걸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외의 반긴축 GND 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100%을 내세우며, 원전 폐지를 암시하고는 있으나, 이를 명언하고 있지는 않다.

둘째, 탄소의 삭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탄소세의 도입에 관한 언급이 적은 점이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DiEM25 가, Carbon Fee 를 도입하고, 그것을 통해 탄소배당을 실현하려 하는 것이다. 또, DiEM25 은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손해세의 도입도 내걸고 있다. 탄소세는 정치적으로 도입이 곤란하며, 역진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후변동대책과 격차·빈곤의 시정을 동시에 내거는 반긴축 GND 에서는, 되도록 기피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세가 가지는 역진성의 해소를 고려한 ‘탄소배당에 관한 미국 경제 학자들의 성명’은 큰 의미를 가진다.

셋째, 반긴축 GND 의 발표 주체는 모두 야당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내건 GND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해서 정권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 목표가 대단히 야심적인 점이다. 긴축 GND 의 대부분은, 2030 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100% 달성과, 온실 가스의 배출 제로 혹은 대폭적인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야심적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에 필연적으로 의문이 따르기 마련이다.

다섯째, 반긴축의 경제학이 어느 정도로 폭넓게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많은 각국에서 긴축정책이 정체와 곤궁을 실제로 초래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반긴축은, 많은 고명한 경제학자가 제창한 바 있고, 이론적으로도 충분한 축적이 있어, 실증적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정계·관계·매스컴 및 경제학회에서 지배적인 조류인 긴축 지향과 정면에서 맞서기 위한 더 많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면서도 주의 깊은 지식 보급이 요구된다.

## 6. 결론

기후 위기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격차와 빈곤의 확대를 배경으로 2018 년이후 차례로 발표된 반긴축 GND 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집어 엮는, 환경 정책과 경제 정책의 통합책이다. 환경이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의 투자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고용 창출이나 격차의 해소, 경기 자극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에의 부담을 삭감하기 위한 산업 구조·사회 구조의 변혁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변혁에는 고용의 공정한 이행이나, 개발도상국, 직업, 소득, 부, 인종, 젠더, 세대 등의 모든 불공정의 시정도 포함된다. 게다가, 반긴축 GND 는 반긴축 경제이론에 근거하고, 주된 재원을 증세에서 추구하지 않고, 민간 자금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폐발행권에 근거하는 재정지출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BI 나 JGP 라고 불리는 선진적인 정책도 포함한다. 반긴축 경제이론은, 경제학적으로는 좌파 케인스학과, MMT, 신용 창조 폐지파가 주된 조류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최근 유럽에서 약진을 보여주는 좌파 신당 및, 기존의 좌파 리버럴 정당의 급진적인 정치가들 사이에 새로운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반긴축 GND 에도 몇 가지의 과제가 존재한다. 원전이나 탄소세에 관한 언급이 적으며, 또한, 매우 야심적인 목표를 내걸기에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반긴축 경제 정책은 충분한 이론적·실증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긴축이라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 때문에, 그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더 용이주도한 형식으로 지식보급이 이뤄져야 한다.

여하튼, 격차·빈곤 확대에 의해 사람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배외적인 극우세력이 대두하고 있는 현재, 좌파 리버럴측에는,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에 더 기대온 중도노선과는 또 다른, 획기적인 제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경과 경제적 곤란의 양쪽을 모두 정면으로부터 대응하는 GND 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이다. GND 를 둘러싼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후 한층이 아카데미한 분석과, 정치적인 토론이 필요하사. 앞으로의 반긴축 GND 의 동향에 주목해 가고 싶다.

## 사사

본고의 집필에 즈음하여, 아스카 주센(明日香壽川) 씨, 사토 가즈아키(佐藤一光) 씨, 사이토 고헤이(齊藤幸平) 씨, 야마자키 이치로(山崎一郎)씨, 오이시 아키코(大石晃子) 씨에게 귀중한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본론의 견해에 대해서는 모두 필자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 참고 문헌(논문·서적)

EPRI (2011) *Estimat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Smart Grid, A Preliminary Estimate of the Investment Requirements and the Resultant Benefits of a Fully Functioning Smart Grid*,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朴勝俊, 長谷川羽衣子, 松尾匡「反緊縮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とは何か」

『環境経済・政策研究』, 2020, 13 巻, 1 号, pp. 27-41

[https://doi.org/10.14927/reeps.13.1\\_27](https://doi.org/10.14927/reeps.13.1_27)

(EPRI), 2011 Technical Report.

Gimpel, J. G., F. E. Lee and R. U. Thorpe (2012) “Geographic Distribution of the Federal Stimulus of 2009”,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27, no. 4, pp. 567-595

Hartmann, H. (2009) “Women, the Recession, and the Stimulus Package”, *Dissent*, Fall 2009, pp. 42-47

IPCC (2018) “Summary for Policymakers”, *Global Warming of 1.5°C, An 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pathways, in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Jacobson, M. Z et al. (2017) 100% Clean and Renewable Wind, Water, and Sunlight All-Sector Energy Roadmaps for 139 Countries of the World, *Joule*, 1, pp. 108-121.

Klein, N. (2019) *On Fire: The (Burning) Case for a Green New Deal*, Simon and Schuster.

熊谷徹(2012)『なぜメルケルは「転向」したのか』, 日経 BP 社

Lee, S., H. Pollitt, K. Fujikawa (2019) *Energy, Environment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in East Asia*, Routledge.

李秀澈・U. Chewpreecha・朴勝俊(2019)「日本の 2050 年温室効果ガス 80% 削減に向けた炭素税・グリーン税制改革の経済影響評価:E3ME マクロ計量経済モデルを用いた評価」『財政と公共政策』, 第 41 巻, 第 1 号, pp. 84-94

松尾匡(2019)「反緊縮のマクロ経済政策諸理論とその統合」『経済学雑誌』第 119 巻第 2 号, pp. 9-40

Mercure, J.-F., H. Pollitt, N. R. Edwards, P. B. Holden, U. Chewpreecha, P. Salas, A. Lam, F. Knobloch, J. E. Vinuales (2018)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climate change policy with the simulation-based integrated assessment model E3ME-FTT-GENIE”, *Energy Strategy Reviews*, 20 (2018) 195-208

諸橋邦彦(2009)「諸外国の「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環境による産業・雇用の創出—」『国立国会図書館 ISSUE BRIEF』, No. 641

諸富徹編著(2019)『入門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と電力システム 再エネ大量導入時代の次世代ネットワーク』日本評論社

Nersisyan, Y. and L. R. Wray (2019) “How to Pay for the Green New Deal”, Levy Economics Institute Working Paper No. 931, May 2019.

野口旭(2015)『世界は危機を克服する: ケインズ主義 2.0』, 東洋経済新報社

Nordhaus, W. D. (2017) “Revisiting the social cost of carbon” *PNAS*, 114(7), pp. 1518-1523.

朴(2009)『環境税制改革の「二重の配当」』, 晃洋書房

Pettifor, A. (2018) “To Secure a Future, Britain Needs a Green New Deal”, in John McDonnell ed. (2018) *Economics for the Many*, Verso, pp. 43-55

Pettifor, A. (2019) *The Case for the Green New Deal*, Verso

Pollitt, H., S. Lee & Park S. (2016) “Introduction to the modeling in this book”, in Lee, Pollitt and Park eds. *Low-carbon, Sustainable Future in East Asia, Improving energy systems, taxation and policy cooperation*, Routledge, pp. 29-41

Pollitt, H. and J.F. Mercure (2018) “The role of money and the financial sector in energy-economy models used for assessing climate and energy policy”, *Climate Policy*, Vol. 18, No. 2, pp. 184–197

Ram M., D. Bogdanov, A. Aghahosseini, A. Gulagi, A. S. Oyewo, M. Child, U. Caldera, K. Sadovskaia, J. Farfan, LSNS, Barbosa, M. Fasihi, S. Khalili, B. Dalheimer, G. Gruber, T. Traber, F. de Caluwe, H.-J. Fell, C. Breyer (2019) *Global Energy System based on 100% Renewable Energy – Power, Heat, Transport and Desalination Sectors*. Study by Lappeenrant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nergy Watch Group, Lappeenranta, Berlin, March 2019.

Rifkin, J. (2019) *The Green New Deal, Why the Fossil Fuel Civilization will Collapse by 2028, and The Bold Economic Plan to Save Life on Earth*, St. Martin’s Press. (Kindle Version).

Rogelj, J., D. Shindell, K. Jiang, S. Fifita, P. Forster, V. Ginzburg, C. Handa, H. Khesghi, S. Kobayashi, E. Kriegler, L. Mundaca, R. Seferian, and M.V. Vilarino (2018) “Mitigation Pathways Compatible with 1.5 – C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Global Warming of 1.5°C An 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 –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pathways, in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田中宏(2019)「2019 欧州議会選挙と EU の展望 地域信任体系の視角から」『経済』 289 号, 2019.10, pp. 12-25

Tarus, L., M. Hufford and B. Taylor (2017) “A Green New Deal for Appalachia: Economic Transition, Coal Reclamation Costs, Bottom-Up Policymaking (Part 2)”, *Journal of Appalachian Studies*, 23(2), pp. 151-169

Taylor, B., M. Hufford and K. Bilbrey (2017) “A Green New Deal for Appalachia: Economic Transition, Coal Reclamation Costs, Bottom-Up Policymaking (Part 1)”, *Journal of Appalachian Studies*, 23(1), pp. 8-28

寺島実郎・飯田哲也・NHK 取材班(2009)『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環境投資は世界経済を救えるか』, 日本放送出版協会

The Green New Deal Group (2008) *A Green New Deal: Joined-up policies to solve the triple crunch of the credit crisis, climate change and high oil prices*, New Economics Foundation (NEF), July 2008

UNEP (2009) *Global Green New Deal*, UNEP, September 2009

朴勝俊, 長谷川羽衣子, 松尾匡 「反緊縮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とは何か」  
『環境経済・政策研究』, 2020, 13 巻, 1 号, pp. 27-41  
[https://doi.org/10.14927/reeps.13.1\\_27](https://doi.org/10.14927/reeps.13.1_27)

Weiss, J., J. M. Hagerty and M. Castaner (2019) *The Coming Electrification of the North American Economy, Why We Need a Robust Transmission Grid*, Brattle Group, March 2019.  
レイ, L・ランダル著, 島倉原監訳(2019) 『MMT 現代貨幣理論』 東洋経済新報社

## 참고자료

- Aronoff, K. (2018) “Alexandria Ocasio-Cortez on Why She Wants to Abolish ICE and Upend the Democratic Party”, *IN THESE TIMES*, June 25, 2018  
<https://newrepublic.com/article/153127/democrats-stole-green-partys-best-idea>
- 明日香壽川, 飯田哲也, 佐々木寛, 田中信一郎, 槌屋治紀, 松久保肇, 松原弘直, 山崎誠(2019) 「原発ゼロ・エネルギー転換戦略 日本経済再生のためのエネルギー民主主義の確立へ」 未来のためのエネルギー転換研究グループ  
<https://drive.google.com/open?id=1jNN8Lqr6gCrFwX4SJUNjA99q3HV0YLXC>
- Atkin, E. (2019) “The Democrats Stole the Green Party’s Best Idea”, *The New Republic*, 2019  
<https://newrepublic.com/article/153127/democrats-stole-green-partys-best-idea>
- Bütikofer, R. and S. Giegold (2009) *The Green New Deal*, The Greens/EFA group in the European Parliament.  
[https://sven-giegold.de/wp-content/uploads/2009/12/Green-New-Deal\\_en.pdf](https://sven-giegold.de/wp-content/uploads/2009/12/Green-New-Deal_en.pdf)
- Coelho, A. (2019) “AOC buckled under pressure over basic income” *Basic Income News*, 2019.3.27  
<https://basicincome.org/news/2019/03/aoc-buckled-under-pressure-over-basic-income/>
- Choi, M. (2019) “Ocasio-Cortez floats 70 percent tax on the super wealthy to fund Green New Deal” *Politico*, April 1, 2019  
<https://www.politico.com/story/2019/01/04/ocasio-cortez-70-percent-tax-1080874>
- DiChristopher, T. (2019) “Alexandria Ocasio-Cortez just released her massive Green New Deal—here’s what’s in it” *CNBC*, 2019.2.7  
<https://www.cbc.com/2019/02/07/aoc-just-updated-her-massive-green-new-deal--heres-whats-in-it.html>
- European Greens (2012) *The Social dimension of the Green New Deal*, European Greens.  
<https://europeangreens.eu/sites/europeangreens.eu/files/news/files/GND%20social%20dimension%20adopted.pdf>
- Friedman, L. (2019) “Bernie Sanders’s ‘Green New Deal’: A \$16 Trillion Climate Plan” *New York Times*, 2019.8.22  
<https://www.nytimes.com/2019/08/22/climate/bernie-sanders-climate-change.html>
- Friedman, T. L. (2019) “The Green New Deal Rises Again” *New York Times*, 2019.1.8  
<https://www.nytimes.com/2019/01/08/opinion/green-new-deal.html>
- Green Party US (2012) *The Green New Deal*,  
[https://www.gp.org/green\\_new\\_deal](https://www.gp.org/green_new_deal)
- Holland, B., M. Boesler (2019) “MMT Has Been Around for Decades. Here’s Why It Just Caught Fire”, *Bloomberg*, 2019.3.1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3-11/mmt-has-been-around-for-decades-here-s-why-it-just-caught-fire>
- Meyer, J. (2019) “Who to trust more – Greens or DiEM25? – on climate?”, *DiEM25 HP*, 2019.5.24  
(朴勝俊訳 「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の財源に関するパルファキス (DiEM25) とギーゴルト (独緑の党) の論争」 NGO e-みらい構想, 2019.12.5)  
<https://diem25.org/who-to-trust-more-greens-or-diem25-on-climate/>
- Nilsen, E., U. Irfan (2019) “Why Bernie Sanders and AOC are targeting public housing in the first Green New Deal bill”, *VOX*, 2019.11.14  
<https://www.vox.com/2019/11/14/20964660/aoc-bernie-sanders-green-new-deal-housing>
- O’Hagan, E. M. (2019) “Political highlight of the week? Actually, it was Labour’s carbon game-changer” *The Guardian*, 2019.9.25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sep/25/labour-green-new-deal>
- Powell, D., L. Krebel, and F. von Lerven (2019) “Five ways to fund a Green New Deal” *New Economics Foundation*, 2019.11.28  
<https://neweconomics.org/2019/11/five-ways-to-fund-a-green-new-deal>
- Relman, E. (2019) “Alexandria Ocasio-Cortez says the theory that deficit spending is good for the economy should ‘absolutely’ be part of the conversation”, *Business Insider*, 2019.1.8  
<https://www.businessinsider.com/alexandria-ocasio-cortez-ommt-modern-monetary-theory-how-pay-for-policies-2019-1?r=US&IR=T>
- Rizzo, S. (2019) “What’s actually in the ‘Green New Deal’ from Democrats?”, *The Washington Post*, 2019.2.11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19/02/11/whats-actually-green-new-deal-democrats/>
- ロイター (2019) 「米上院, 「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を否決」  
<https://jp.reuters.com/article/grren-new,-deal-idJPKCN1R805U>
- Sanders, B. (2019) “The Green New Deal” *Bernie 2020 HP*, 2019.8.22  
<https://berniesanders.com/issues/green-new-deal/>
- The Labour Party (2019) *Green Industrial Revolution*, in *It’s Time for Real Change The Labour Party Manifesto 2019*

朴勝俊, 長谷川羽衣子, 松尾匡「反緊縮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とは何か」

『環境経済・政策研究』, 2020, 13 巻, 1 号, pp. 27-41

[https://doi.org/10.14927/reeps.13.1\\_27](https://doi.org/10.14927/reeps.13.1_27)

<https://labour.org.uk/manifesto/>

The Wall Street Journal (2019) *Economists' Statement on Carbon Dividends*, 2019.1.16

[https://www.wsj.com/articles/economists-statement-on-carbon-dividends-11547682910#comments\\_sector](https://www.wsj.com/articles/economists-statement-on-carbon-dividends-11547682910#comments_sector)

東洋経済 PLUS 「AOC、GND に MMT、新・社会主義の不安と恍惚」東洋経済新報社, 2019 年 4 月 27 日号

<https://premium.toyokeizai.net/articles/-/20433>

UN News Center (2009)“Secretary-General calls for ‘Green New Deal’ at UN climate change talks” December 11, 2008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29264&Cr=Climate&Cr1>

Varoufakis, Y. (2017) “A New Deal to Save Europe”, *Social Europe*, 2017.1.25

<https://www.socialeurope.eu/new-deal-save-europe-deal-save-europe/>

Wohlfarth, T. (2019) “Klassenkampf statt Klimakrieg”, *der Freitag*, *Das Meinungsmedium*, 2019.9.3 (朴勝俊訳)

(2019)「気候変動に対する戦争よりも階級闘争を」NGO e-みらい構想, 2019.10.23)

<https://www.freitag.de/autoren/tom-wohlfarth/klassenkampf-statt-klimakrieg>

山岸尚之(2019)「米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決議案の行方」*SankeiBiz*, 2019.4.22

<https://www.sankeibiz.jp/econome/news/190422/ecc1904220500002-n1.htm>